

KT電機(株)의 공장들을 둘러보고

김극천 <서울대학교 명예교수>

지난 6월 25일 KT전기(주)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공장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었다. 동 회사가 창립 20주년 기념일(지난 5월 25일)을 맞이하여 社史 “20년의 발자취”를 발간했는데 그 책자를 통하여 괄목할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었고, 창업자인 具滋英 사장은 1970년대 초 한국 조선공업이 新紀元을 열 때 상공부 조선과장으로 서 그 역할이 지대했었던 점, 1995년 초에 어렵게 마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고가의 충격시험기 2대를 관련기술의 개발 촉진과 범용적 활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기계연구원 구조시스템연구부에 기증하기로 결심한 점 등에 큰 감동을 받아 필자의 발길이 그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. 前記 연구부의 진동 및 구조동역학 팀에는 대학원과정에서 필자가 지도하였던 연구원 여러 사람이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.

1970년대 초, 즉 제 3공화국 시절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(1972-1976)에서 정부는 조선공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했었다. 이 무렵 실무책임자인 상공부 조선과장이 具滋英씨였다. 조선공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해야하는 當爲性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具과장의 활동은 참으로 크게 돋보였었다. 당시 상공부 장관이 具과장을 가르켜 ‘조선장관’이라 애칭할 정도였고, 造船界人士들도 사석에서는 늘 그렇게 애칭했었다.

그 당시 정부가 조선공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유중에 그 요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: 제 1,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로

공업화 기반이 다져져가고 있는데, 특히 기계·금속·전기기기 등의 공업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先導공업의 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. 그 선도공업으로서는 조선공업이 가장 합당하다.

정부가 조선공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한 후 具과장은 造船機資材産業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입안과 실행에도 심혈을 경주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상공부 관직을 사임하고, 船用 配電盤·각종 制御機·發電機·電動機의 설계·제조·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조선기자재업체 韓國大洋電機(株)를 1979년 5월 25일자로 설립했다. 설립당시에는 조선기자재업체인 三工社(株) (사장 鄭海龍)의 공장 한 구석을 빌려서 종업원 6명을 거느리고 업무를 개시했었다. 이 회사가 오늘의 KT電機株式會社の 前身이다.

具사장은 회사설립 초기부터 韓國造船機資材工業協同組合의 설립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추진하여 1980년 동 조합을 발족시키는데 성공했고, 1984년부터는 동 조합의 理事長에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. 이 조합의 회원사가 현재 200여 업체에 달하고, 조선기자재 국산화율도 80%를 상회하고 있다. 실로 격세지감을 갖게된다.

KT전기(주)는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. 지금은 종업원 150여명, 1998년도 매출액 240억원을 넘는 중견 중소기업체로 성장했다. 지난 20년간에 걸쳐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自動化 配電盤을 탑재한 선박이 670여척에 달하는데, 이에는 5,600TEU 컨테이

너선·6,000대 규모 자동차 운반선·해저 광케이블 부설선·70여척의 해군함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. 부설 연구소 및 엔진 원격조종 시뮬레이터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고, 또 7개 협력회사를 육성해 오고 있다.

현재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는데, 특히 자동화/무인화 선박 구현의 핵심 기자재인 綜合航法장치(integrated navigation system), 초대형 컨테이너선·FPSO 등 특수선용 高壓(AC 6,600 V) 配電盤, 서랍식 스타터(draw-out starter) 등의 개량형 국산화 개발이 돋보인다. 이들은 사실상 시판단계에 다가섰다고 한다. 또한 ISO 9001 품질시스템의 구축에도 심혈을 경주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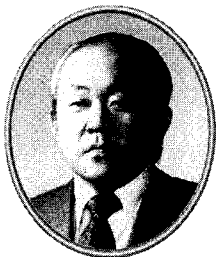
기술개발 및 경영관리 면에서의 꾸준했던 노력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좋은 결실을 얻어 훌륭한 중소기업체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. 즉, 大韓造船學會 技術賞(1993)·銀塔 産業勳章(1995)·長銀技術賞(1996) 등 수상경력이 화려하고, 中小企業廳으로부터 有望先進技術企業



〈그림 1〉 KT전기(주) 조립공장 내부

(1996) 및 競爭力優秀企業(1999)으로 지정 받았고 또 勞動部로부터는 勞使協力優良企業(1997)으로 선정된 바 있다.

한국조선공업이 세계 정상 of 的 위치를 확고히 굳히는데 있어서 국내 기자재공업의 발달이 중요한 관건임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다. KT전기(주) 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한결같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 선두 위치에 자리 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맺는다.



김 극 천

- 1930년 9월 30일생
- 대한조선학회 전회장
- 서울대학교 명예교수
- 관심분야 : 진동·구조 동력학 분야